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 추석민심 ‘찬바람’

“정치 요동치는데 민주당은 뭘 하는지..”

추석연휴 귀향 활동을 벌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물가 폭등 등에 따른 한숨이 끊이지 않았으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바다 민심’이 악화하면서 내년 총선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민주당의 존재감이 약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하지만,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등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돌출으로 야권의 대선 구도가 커지면서 정권 탈환의 가능성도 커졌으며 기대감을 갖는 주민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 대부분이 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방문 등에 박힌 귀향 활동에 그저 지역 구석구석의 민심을 읽

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역구 관내 시영종합복지관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동네상가 등을 돌며 추석 연휴를 지역구에서 보내면서 “주민들로부터 질책과 충고를 많이 받았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전셋값, 기름값, 생활비 등 어느 하나 안 오른 게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며 “그렇다 보니 집 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목소리 높았다. 야당이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심각히 오른 물가로 상인들은 물론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며 “최근 ‘안철수 신드롬’과 관련,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수권정당으로서 일신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의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전셋값, 기름값, 생활비 등 어느 하나 안 오른 게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며 “그렇다 보니 집 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목소리 높았다. 야당이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심각히 오른 물가로 상인들은 물론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며 “최근 ‘안철수 신드롬’과 관련,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수권정당으로서 일신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의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 광주일보 추석 여론조사 반응

의원들 새 인물 원하는 민심에 당혹

“내년 총선 공천 영향 미칠라” 조직 재정비 등 나서

단체장들 “분발 하겠다”

광주일보가 추석에 앞두고 지역주민 1만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 결과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간 희비가 교차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호남 돌같이’ 등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재신임하겠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 일부 국회의원 측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일보의 이번 여론조사가 단일 선거구에서 600명, 복합 선거구 1000명 등 대규모의 샘플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의 흐름이 정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광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표정이다. 이들은 변화를 바라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바닥 다지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위한 광주·전남 지역별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일보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중이다.

직무수행평가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장들은 “남은 임기동안 더욱 분발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상당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역 주민들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갓 지난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지율보다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당혹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孫 “민주당 문 열려있다” 朴 “국민 변화 요구 따를것..”

■ 손학규·박원순 회동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주자로 부상한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민주당 입당 의사를 우회적으로 타진했다.

이날 만남은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였던 한명숙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 변호사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 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우회적으로 박 변호사의 입당을 권유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새로운 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너무나 깊다”면서도 “야권과 시민사회 통합 후보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안철수 대화원장이나 저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생각은 현재의 정당 질서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조금 더 혁신과 통합이 이뤄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역할론’을 내세우며 거리를 유지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야권통합의 제1당이자 민주진보 진영의 종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누가 됐든 민주당이 앞장

서서 통합을 이뤄낼 것이다. 좋은 후보, 이것은 후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야권의 단일후보를 만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며 “박 변호사의 방문도 범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박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 문제가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향후 야권 내부의 경선 구도, 그리고 여권의 후보 상황에 따라서는 전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증거 인멸 우려”

곽노현 구속수감

서울중앙지법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서울구치

소에 수감돼 영어(監語)의 몸이 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위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참 별난 秋夕됐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스타·세계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동점(합동점) 상설로 입구: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회)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 시민회관) 030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 2001 아울렛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인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매곡역) 032039-4400 부산 서면점(사면로터리)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명로터리) 052089-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야구대미극장) 053425-7575 경북 포항점(유저) 054044-5110 안동점(구 안동고속터미널) 0540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 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 063252-5728 고산점(구 시청앞) 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4거리) 063636-9600 남원점(시영세거리) 063632-2626 대전 대덕점(도동)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04222-339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653-289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 카페) 043022-1177-6 충주점(삼천로터리) 043852-1414 경북 김천점(옥천로) 033647-5588 충청점(영동로)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동로터리) 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계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 광주 구도동점 세계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계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계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